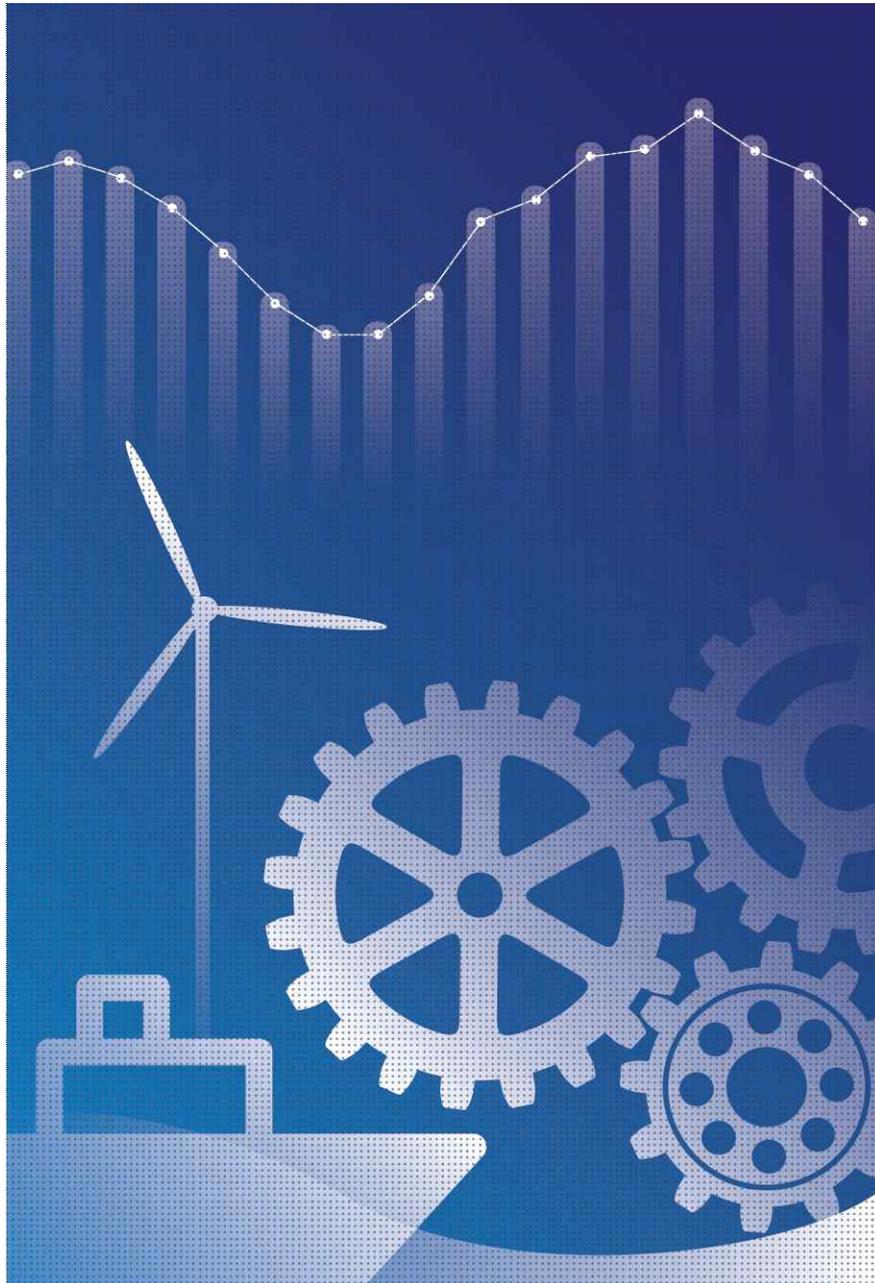


이슈보고서

산업경제팀

VOL.2022-이슈-11(2022.06)

방위산업의 특성 및 수출전략



CONTENTS

<요약>

I. 방위산업 개요 및 특성

1. 방위산업 개요

2. 방위산업의 특성

II. 전 세계 방위산업 동향

1. 전 세계 방위산업 현황

2. 국가별 방산 수출입 현황

III. 국내 방위산업 동향

1. 국내 방위산업 현황

2. 방산 수출 지원 정책 및 수출현황

IV. 시사점

1. 방산 수출의 필요성

2. 방산 수출전략

작성

책임연구원 김호건 (6252-3610)

인턴 김명건 (6252-3615)



<요 약>

I. 방위산업 개요 및 특성

방산 수출은 정부를 대상으로 하여 비교적 민간 경제 상황에 민감하지 않으며 절충교역, 수출금융지원, 정부 간 거래 등으로 활성화되어 있음

- 국가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방산품목 특성상 정부의 조달 현황과 계획 등 정보취득이 어려움
- 계약부터 물품 인도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장기간 운용하는 방산물자 특성상 후속 지원 등이 필요함
- 절충교역은 방산 수출의 중요한 거래형태로 비용을 절감하거나 독자적인 방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음
- 절충교역이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상대국에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 방산 수출은 대출규모가 크고 장기간 거래로 상업은행을 통한 대출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수출신용기관(ECA)을 통한 보증·대출 등이 필요

II. 전 세계 방위산업 동향

2017-2021년 전 세계 무기거래 규모는 2012-2016년에 비해 4.6%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 증감률에 차이를 보임

-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19년 전 세계 무기 수출 규모를 약 2,500억 달러로 추정
-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17-'21년 무기 수입 규모는 '12-'16년 대비 각각 36%, 34% 감소하였으나 유럽,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의 무기 수입 규모는 각각 19%, 20%, 59% 증가
- 아시아&오세아니아는 전 세계 무기 수입의 43%를 차지하는 주요 무기 수입 지역이며 무기 수입 상위 10개국 중 6곳을 차지
-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무기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동남아 및 남아시아의 무기 수입은 각각 24%, 21% 감소

항공기는 전 세계 무기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미사일과 함정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항공기는 '17년부터 '21년까지 무기 수출의 47%를 차지하였으며 미사일과 함정은 각각 13%를 차지
- '17-'21년 항공기 수출 비중은 '12-'16년과 비교해 6%p 확대된 반면 함정·센서·방공시스템의 비중은 각각 2%p씩 감소

- 한국은 전 세계 함정, 화포 수출의 15.0%, 39.7%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미미한 수준

* 전 세계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함정(15%), 화포(39.7%), 항공기(0.7%), 기갑차량(0.3%), 미사일(0.1%)



III. 국내 방위산업 동향

2020년 국내 방산업체 매출은 전년 대비 6.2% 증가한 15조원, 영업이익은 16.4% 증가한 5,675억원으로 2017년 이후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음

- '17년 수리온 품질 불량 및 군함 수주 감소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방산업체 평균 영업이익률은 0.5%까지 줄어들었으나 '20년 3.7%까지 회복
- * '20년 분야별 영업이익률: 항공유도(4.7%), 탄약(5.8%), 화력(6.8%), 함정(△6.8%), 기동(4.2%), 통신전자(4.2%), 화생방(5.4%), 기타(7.2%)
- '20년 함정분야는 신규 수주 실적 부족 및 제한된 국내시장에서의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방산업체 중 유일하게 영업손실을 기록
- '20년 방위산업 매출은 국내 88.2%, 해외 11.8%로 구성
- 방위산업은 내수 중심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어 수출을 통한 시장 확대가 필요

IV. 시사점

방산 수출 확대는 방산업체의 가동률 및 생산성 제고와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안보 강화 및 기술발전에 기여할 전망

- 수출을 통해 국내 방산업체의 가동률을 높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생산성이 개선되면 우리 군은 방산물자를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조달 가능
- 높은 수준의 방산 기술은 민간으로 이전되어 국내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여러 국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하여 수출상대국을 다변화하고 국가별 맞춤형 방산 수출전략 수립이 필요함

- 방산 수출은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며 국가별 맞춤 전략을 통해 방산수출 확대
- 방산 수출은 수출 상대국과 외교적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민간분야의 경제 협력관계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무기체계 공동개발 등 첨단기술 개발 및 수출을 목표로 방산 구조 고도화 추진 필요

- 국제공동개발 사업으로 개발예산을 절감하고 수출 가능성 확대
- 우주항공, 감시·정찰 등 첨단기술 개발 지원 및 인력 육성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구조 고도화 달성
- 방산 구조 고도화를 통해 국내 방산업체의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함정, 화포 분야로 제한적인 한국의 방산 수출 품목을 다각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인수합병 등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노력 필요
- 인수합병, 합작 투자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 및 생산성 향상을 이뤄 경쟁력 강화



I. 방위산업의 개요 및 특징

1. 방위산업 개요

방위산업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방위산업발전법)」에 따라 방위산업물자등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개조)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

- 방산물자란 항공기·함정·탄약 등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 그리고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물자
- 국군의 무기체계는 통신(무전기 등), 감시·정찰, 기동(전차·장갑차·기동지원장비), 함정(잠수함·구축함·호위함 등), 항공(전투기·수송기, 헬리콥터 등), 화력(소화기·박격포·로켓 등), 방호(대공포 등), 사이버, 우주, 전투력 지원을 위한 필수장비 등 그 밖의 무기체계로 구분
- 정부는 방산업체의 대규모 투자 및 고위험 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 중 화력장비·유도무기·항공기·함정 등을 생산하는 업체를 주요방산업체로, 그 외의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일반방산업체로 구분
- 방위사업청에서 방산물자를 지정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당 방산물자에 대한 방산업체를 지정
- 이에 따라, 방산물자로 지정된 물자에 한해서만 방산업체가 됨

무기체계 분류

지휘통제·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휘통제체계 • 통신체계 • 통신장비 	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익항공기(전투기, 초계기 등) • 회전익항공기(공격헬기, 정찰헬기 등) • 무인항공기 • 항공전투지원장비(항공항법장비 등)
감시·정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전장비 • 레이더장비 • 전자광학장비 • 수중감시장비 • 기상감시장비 • 정보분석체계 • 기타 	화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기(권총, 기관총 등) • 대전차화기 • 화포(박격포, 로켓 등) • 화력지원장비(표적탐지 레이더 등) • 탄약 • 유도무기 • 특수무기(레이저무기)
기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차 • 장갑차 • 전투차량 • 기동지원장비(도하장비 등) • 지상무인체계 • 개인전투체계 	방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공(대공포 등) • 화생방 • EMP방호
함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함(전투함, 상륙함 등) • 잠수함 • 전투근무지원정 • 해상전투지원장비 • 함정무인체계 	사이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작전체계
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익항공기(전투기, 초계기 등) • 회전익항공기(공격헬기, 정찰헬기 등) • 무인항공기 • 항공전투지원장비(항공항법장비 등) 	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감시 • 우주정보지원 • 우주통제 • 우주전력투사
그 밖의 무기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계임모델 • 전투훈련모의장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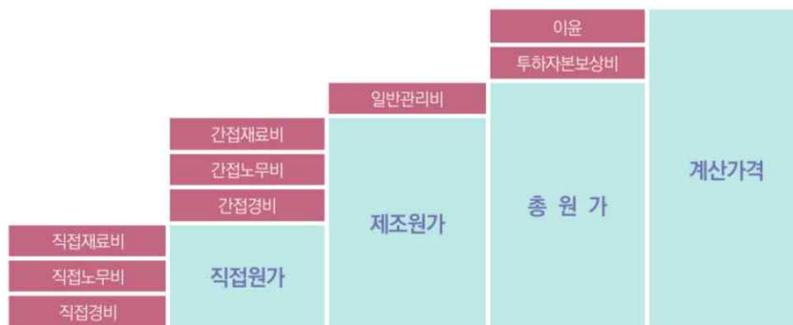


2. 방위산업의 특성

방위산업은 공급자(방산업체)와 수요자(정부)가 한정된 산업으로 제품의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원가와 이윤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

- 정부가 방산원가에 적정 비율의 이윤을 더해 보상하는 방식으로 방산업체의 원가절감 유인책이 없는 문제가 있음
 - 원가가 줄면 방산업체의 이윤이 줄어드는 구조이며 실제 발생 원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가격을 낮추려는 정부와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방산업체 사이에 잦은 소송 발생
- 방산원가구조를 단순화하여 적정이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구조 개선 노력 중
 - 방산업체가 원가자료를 제출하면 방위사업청 원가팀에서 실사 등을 통해 원가를 계산하고 심사팀에서 이를 심사하는 등의 복잡한 과정이 있었음
 - 그러나, 원가구조 개선으로 방산업체가 외부 전문가가 검토한 원가자료를 계약팀으로 제출하도록 단순화한 제도 시행 (원가자료 성실성 추정 제도)

방산원가 및 이윤 구조



자료: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수출 시 방위사업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의해 수출 등이 제한됨

- 국제평화를 위해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에 따라 핵무기, 화학무기 등의 전략물자 이동을 통제
 - 수출 시 방산업체는 반드시 수출통제 대상 품목 여부, 수출통제 대상 국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국제수출통제체제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TR),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등이 있음
- 수출 제한국은 이라크, 소말리아, 북한 등이 있으며 시리아, 북한 등을 원산지 또는 선적항으로 하는 수입 제한
 - 단, 이라크의 경우 이라크 정부 및 미·영 등 연합당국에 대한 물품 수출은 허용
 -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에 의해 제한국 변경이 가능



방산 수출은 정부를 대상으로 하여 비교적 민간 경제 상황에 민감하지 않으며 절충교역, 수출금융지원, 정부 간 거래 등으로 활성화되어 있음

- 방산 수출은 단독 제품을 수출하는 일반 상품과 다르게 전체 무기체계와의 연계성이 매우 중요
- 국가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방산품목 특성상 정부의 조달 현황과 계획 등 정보취득이 어려움
- 방산업체의 해외 진출시 현지 네트워크가 중요함
- 계약부터 물품 인도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장기간 운용하는 방산물자 특성상 후속 지원 등이 필요함
- 수출 이후 지속적으로 관계가 유지되어 장기적인 네트워크 관리가 중요
- 절충교역은 방산 수출의 중요한 거래형태로 비용을 절감하거나 독자적인 방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음
- 절충교역이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상대국에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 방산 수출은 대출규모가 크고 장기간 거래로 상업은행을 통한 대출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수출신용기관(ECA)¹⁾을 통한 보증·대출 등이 필요
- 국가위험도·재무상태 등에 따라 방산 수출상대국은 공급자에게 금융지원 및 보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대부분의 선진국은 수출신용기관(ECA)이 상업금융기관의 대출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방산 수출을 지원

주요국 수출신용기관

국가	수출신용기관(ECA)
네덜란드	Atradius Dutch State Business (Atradius)
독일	Euler Hermes Aktiengesellschaft
미국	Export-Import Bank of United States (EXIM Bank)
스페인	Compañía Española de Seguros de Crédito a la Exportación (CESCE)
영국	UK Export Finance (UKEF)
이탈리아	SACE, SIMEST
이스라엘	The Israel Export Insurance Corp. Ltd. (ASHRA)
프랑스	Bpifrance Assurance Export
호주	Export Finance Austrailia

자료: OECD

1) ECA(Export Credit Agency): 자국의 기업 수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보증, 보증을 지원하는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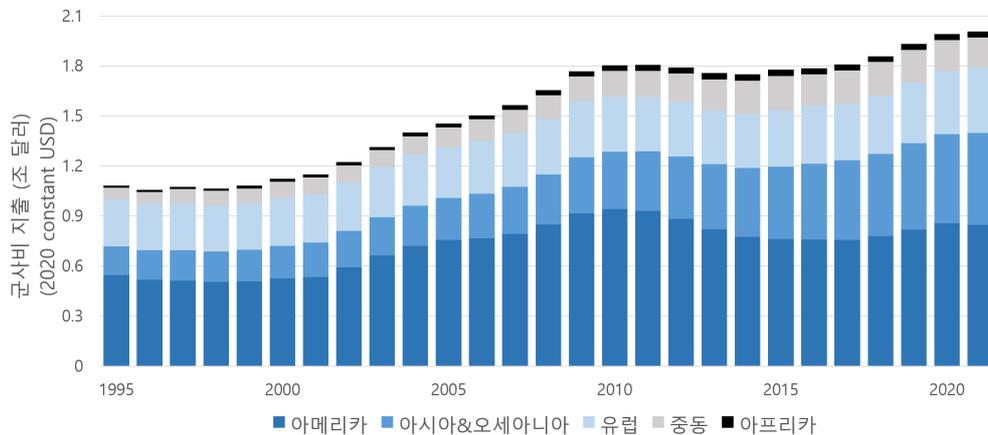
II. 전 세계 방위산업 동향

1. 전 세계 방위산업 현황

2021년 전 세계 군사비는 2014년부터 증가 추세로 2조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 기록

- 전 세계 군사비는 '20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14년 1조 7,572억 달러에서 연평균 2.0% 증가하며 '21년 2조 66억 원 기록
- 군사비 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아시아&오세아니아가 4.3%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유럽과 아메리카는 각각 2.6%, 1.2% 증가하였으나 아프리카와 중동은 각각 연평균 △1.2%, △1.4% 감소
-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상위 5개국인 미국(38.3%), 중국(13.5%), 인도(3.7%), 러시아(3.2%), 영국(3.1%)이 61.7%를 차지

전 세계 군사비 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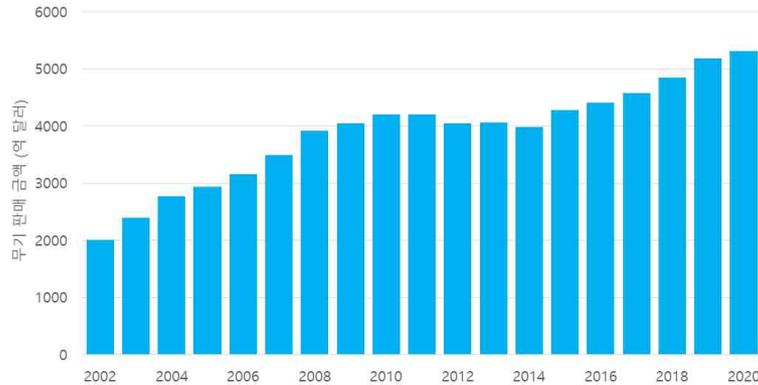
자료: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2020년 전 세계 100대 방산업체의 무기판매 금액은 5,305억 달러 규모이며 군사비 지출 증가 영향 등으로 2014년 이후 연평균 4.9%씩 증가

- '20년 100대 방산업체 중 40곳이 미국 업체이며 뒤를 이어 러시아(9개), 영국(8개), 프랑스(6개), 중국(5개), 일본(5개) 순
- 100대 방산업체 중 상위 10개 업체는 무기판매 금액의 53.3%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6개, 중국 3개 영국 1개로 구성
- '20년 100대 방산업체에 국내업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LIG넥스원, 한화 4곳이 포함됨
- 100대 방산업체 무기판매 금액의 53.5%를 미국 업체가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중국(12.6%), 영국(7.3%), 러시아(5.0%), 프랑스(4.7%) 순
- '20년 100대 방산업체의 무기판매 금액에서 국내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2%로 '10년 0.7%보다 0.5%p 증가



100대 방산업체의 무기 판매금액 추이



자료: SIPRI Arms Industry Database

2017-2021년 전 세계 무기거래 규모는 1,360억 TIV²⁾로 2012-2016년에 비해 4.6%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 증감률에 차이를 보임

-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19년 전 세계 무기 수출 규모를 약 2,500억 달러로 추정
- 국가별로 무기 수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정확한 수출액 집계에는 한계가 있음
-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17-'21년 무기 수입 규모는 '12-'16년 대비 각각 36%, 34% 감소하였으나 유럽,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의 무기 수입 규모는 각각 19%, 20%, 59% 증가
-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등으로 유럽의 무기 수입 증가
- 중국과의 긴장 상태 등으로 동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의 무기 수입 증가
- 아시아&오세아니아는 전 세계 무기 수입의 43%를 차지하는 주요 무기 수입 지역이며 무기 수입 상위 10개국 중 6곳을 차지
-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의 '17-'21년 무기 수입은 '12-'16년 대비 4.7% 감소
-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무기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동남아 및 남아시아의 무기 수입은 각각 24%, 21% 감소

전 세계 무기거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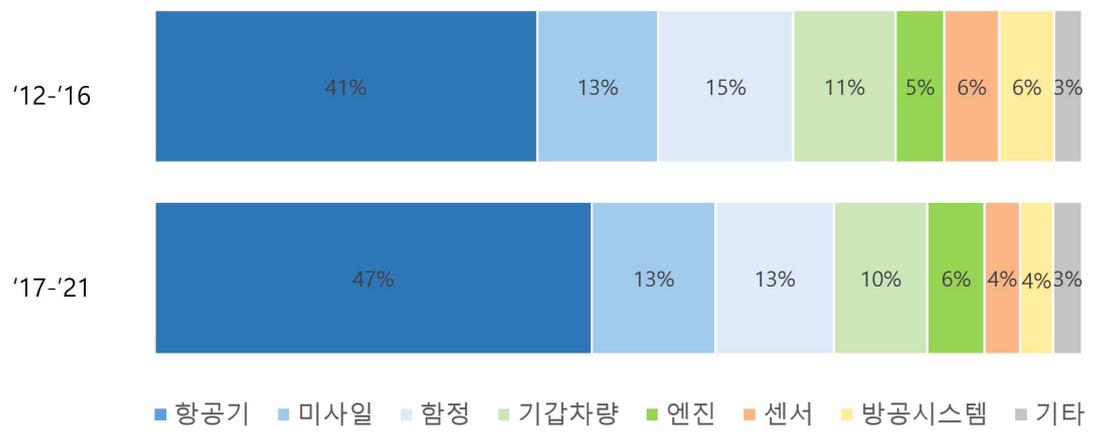
자료: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2) TIV(Trend Indicator Value): 무기거래 추세를 나타내기 위해 무기의 생산 비용을 기반으로 산출한 보조지표

항공기는 전 세계 무기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미사일과 함정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항공기는 '17년부터 '21년까지 무기 수출의 47%를 차지하였으며 미사일과 함정은 각각 13%를 차지
- 항공기와 미사일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가 주로 수출을 하고 있으며 세 개 국가가 전 세계 항공기와 미사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2.5%, 75.5%
 - * '17-'21년 수출 비중(항공기, 미사일): 미국(50.9%, 48.3%), 러시아(18.8%, 17.2%), 프랑스(12.7%, 9.9%)
- 반면, 함정의 수출 비중은 한국(15%), 독일(13.3%), 프랑스(12.2%), 네덜란드(10.3%), 스페인(10.2%) 5개국이 61%를 차지
- '17-'21년 항공기 수출 비중은 '12-'16년과 비교해 6%p 확대된 반면 함정·센서·방공시스템의 비중은 각각 2%p씩 감소
- '17-'21년 항공기 수출은 641.5억TIV로 '12-'16년 대비 9.1% 증가
- '17-'21년 함정, 센서, 방공시스템 수출은 각각 173.8억TIV, 51.8억TIV, 48.6억TIV이며 '12-'16년 대비 16.3%, 38.9%, 42.5% 감소
- '17-'21년 기갑차량 수출은 137.3억TIV로 '12-'16년 대비 13.1% 감소
- 기갑차량이 전체 무기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16년 11%에서 '17-'21년 10%로 축소
- '17-'21년 엔진 수출은 83.9억TIV로 '12-'16년 대비 12.6% 증가하며 비중 1%p 확대
- 한국은 전 세계 함정, 화포 수출의 15.0%, 39.7%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미미한 수준
 - * 전 세계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함정(15%), 화포(39.7%), 항공기(0.7%), 기갑차량(0.3%), 미사일(0.1%)

전 세계 무기별 수출 비중



주) '17~'21 기타품목 비중: 화포(1.3%), 해상무기(0.8%), 위성(0.2%), 기타(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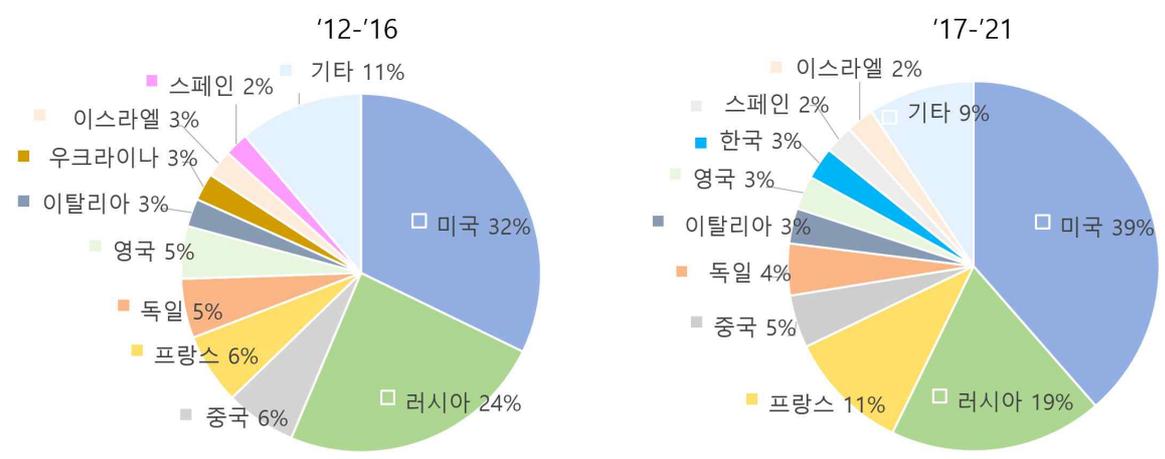
자료: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2. 국가별 방산 수출입 현황

(수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무기 수출 상위 10개국의 수출규모는 1,234억 TIV로 전체의 90.8%를 차지

- 방산 수출 강국인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 5개국의 수출 비중은 '12-'16년 74.5%에서 '17-'21년 77%로 확대
- (미국) '17-'21년 미국의 무기 수출은 '12-'16년 대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한국, 일본으로의 수출이 각각 106%, 78%, 66%, 173% 늘어나며 전 세계 무기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p 확대된 39%
- (러시아) '17-'21년 러시아 무기 수출은 '12-'16년 대비 인도(△47%)와 베트남(△71%)으로의 수출이 줄어들면서 총 26.4%가 감소하였으며 비중은 5.5%p 축소
- (프랑스) 주요 수출 상대국인 인도와 카타르 앞 수출이 '12-'16년 대비 각각 29%, 2487% 증가하며 비중 4.3%p 확대
- (중국)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파키스탄이 중국 무기 수출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17-'21년 무기 수출은 '12-'16년 대비 31% 줄어들어 비중 1.8%p 축소
- (독일) 최대 수출 상대국인 한국으로의 무기 수출은 97.3%가 증가하였으나 미국(△50%), 그리스(△99%), 이스라엘(△80%) 앞 수출이 줄어들며 독일의 '17-'21년 무기 수출은 '12-'16년 대비 19.3% 줄어들어 비중 1.0%p 축소
- '17-'21년 주요국 중 무기 수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국가는 한국으로 '12-'16년 대비 176.8% 증가
- '17-'21년 함정 수출이 '12-'16년 대비 1660% 증가하며 한국의 무기 수출 증가를 주도
- 전 세계 무기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2-'16년 1.0%에서 '17-'21년 2.8%로 확대되어 세계에서 8번째로 큰 무기 수출국이 됨
- 한국의 주요 수출 상대국은 '12-'16년 터키(28%), 인도네시아(27%), 이라크(23%)에서 '17-'21년 필리핀(16%), 인도네시아(14%), 영국(14%)으로 변화

무기 수출 국가별 비중



자료: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17-'21 국가별 주요 수출 상대국 및 주요 수출무기

수출국	주요 수출 상대국			주요 수출무기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23%	호주 9%	한국 7%	항공기 62%	미사일 17%	기갑차량 10%
러시아	인도 28%	중국 21%	이집트 13%	항공기 48%	엔진 16%	미사일 12%
프랑스	인도 29%	카타르 16%	이집트 11%	항공기 56%	함정 15%	미사일 12%
중국	파키스탄 47%	방글라데시 16%	태국 5%	항공기 28%	함정 23%	기갑차량 21%
독일	한국 25%	이집트 14%	미국 6%	함정 38%	기갑차량 15%	엔진 13%
이탈리아	이집트 28%	터키 15%	카타르 9%	항공기 43%	함정 37%	기갑차량 6%
영국	오만 19%	사우디아라비아 19%	미국 19%	항공기 39%	기타 17%	미사일 14%
한국	필리핀 16%	인도네시아 14%	영국 14%	함정 68%	화포 19%	항공기 12%
스페인	호주 51%	터키 13%	벨기에 9%	함정 52%	항공기 44%	센서 3%
이스라엘	인도 37%	아제르바이잔 13%	베트남 11%	미사일 41%	센서 17%	방공시스템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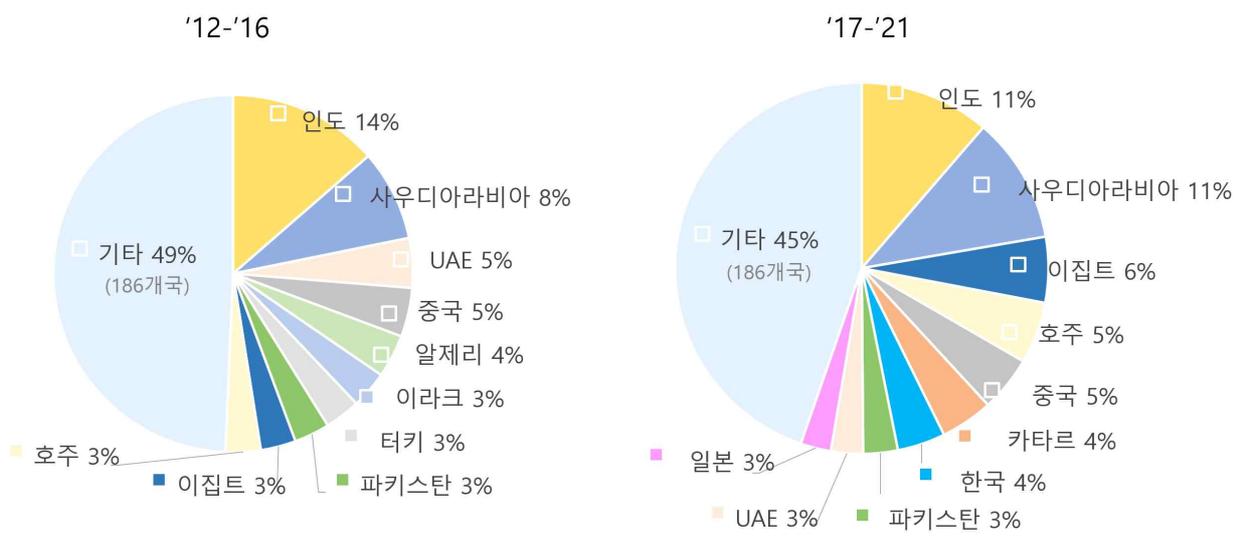
자료: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수입)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무기 수입 상위 10개국의 수입규모는 752억 TIV로 전체의 55.3%를 차지

- 유럽에서 가장 큰 무기 수입국인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는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를 수입하며 유럽 무기 수입 증가를 주도
 - * '12-'16년 대비 무기 수입 증가율: 영국(74%), 노르웨이(343%), 네덜란드(116%)
- 중국의 군비증강으로 인해 '17-'21년 일본, 한국, 호주의 무기 수입은 각각 '12-'16년에 비해 152%, 71%, 62% 증가
- 인도는 '17-'21년 무기 수입이 '12-'16년에 비해 20.6% 감소하였음에도 여전히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이며 중국과 파키스탄과의 갈등 등으로 향후 추가적인 무기 수입 계획 있는 것으로 조사
- 카타르는 '17-'21년 주요 10개 수입국 중 무기 수입이 제일 많이 증가한 국가로 '12-'16년 대비 무기 수입 227% 증가
- 예멘에서의 분쟁이 지속되고 이란과 여타 걸프지역 국가간의 높은 긴장상태가 유지되면서 '17-'21년 무기 수입 증가
- 이집트의 무기 최대 수입 상대국은 '12-'16년 미국에서 '17-'21년 러시아로 변화
- 이집트 무기 수입의 37%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었으나 '13년 이집트 쿠데타로 인해 미국과 마찰이

발생하며 '17-'21년 6.5%로 축소

무기 수입 국가별 비중



자료: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17-'21 국가별 주요 수입 상대국 및 주요 수입무기

수입국	주요 수입 상대국			주요 수입무기		
	상대국	비중 (%)	상대국	무기종류	비중 (%)	무기종류
인도	러시아	46%	프랑스	미국	12%	항공기 50%, 미사일 15%, 엔진 10%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82%	프랑스	영국	5%	항공기 61%, 미사일 18%, 장갑차량 10%
이집트	러시아	41%	프랑스	이탈리아	15%	항공기 50%, 함정 27%, 미사일 11%
호주	미국	67%	스페인	스위스	3%	항공기 63%, 함정 24%, 미사일 5%
중국	러시아	81%	프랑스	우크라이나	6%	엔진 54%, 항공기 25%, 방공시스템 8%
카타르	미국	46%	프랑스	이탈리아	6%	항공기 46%, 미사일 31%, 방공시스템 7%
한국	미국	63%	독일	프랑스	4%	항공기 50%, 함정 20%, 미사일 17%
파키스탄	중국	72%	스웨덴	러시아	6%	항공기 39%, 함정 18%, 장갑차량 15%
아랍에미리트	미국	61%	프랑스	러시아	5%	미사일 53%, 장갑차량 19%, 항공기 9%
일본	미국	98%	영국	스웨덴	0.7%	항공기 81%, 엔진 8%, 해상무기 5%

자료: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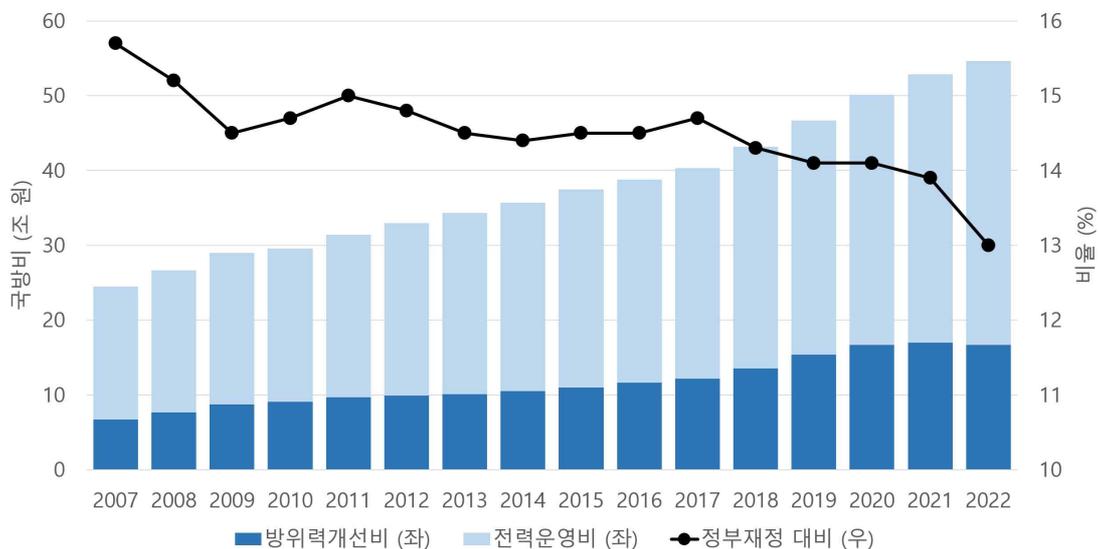
III. 국내 방위산업 동향

1. 국내 방위산업 현황

2022년 한국의 국방비는 54조 6,112억 원으로 방위력개선비 16조 6,917억 원, 전력운영비 37조 9,195억 원으로 구성

- 국방비는 크게 신규 전력 확보를 위한 방위력개선비와 현 전력을 유지·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22년 국방예산의 30.6%, 69.4%를 차지
- 전 세계 군사비가 증가하기 시작한 '14년부터 '22년까지 국방예산은 연평균 5.5%씩 증가하였으며,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는 각각 연평균 6.0%, 5.2% 증가
 - 방위력개선비는 '21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으나 '22년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재검토, 대형기동헬기-II, 특수전지원함 등에서 예산이 줄어들며 '21년 대비 1.8% 감소
 - '22년 전력운영비는 37.9조원으로 전년 대비 5.8% 늘어났으며 병력운영비 21.8조원(39.9%)과 전력유지비 16.1조원(29.5%)으로 구성
- '18년부터 '21년까지 방위력개선비에서 가장 큰 비중(25%~40%)을 차지하던 항공기사업의 '22년 예산은 전년 대비 43.3% 줄어들며 비중은 16%로 축소
 - '22년 무기체계별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액 비중은 방위사업정책지원(20%), 기동화력(19%), 지휘정찰(16%), 항공기(16%), 함정(14%), 유도무기(13%), 기타(1%) 순
-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는 감소 추세로 '17년 14.7%에서 '22년 13.0%까지 축소
 - 정부재정 증가율 대비 국방비 증가율이 낮아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국방비 절대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국방예산 추이



자료: 국방부, 방위사업청



2020년 국내 방산업체 매출은 전년 대비 6.2% 증가한 15조 원, 영업이익은 16.4% 증가한 5,675억 원으로 2017년 이후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음

- '17년 수리온 품질 불량 및 군함 수주 감소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방산업체 평균 영업이익률은 0.5%까지 줄어들었으나 '20년 3.7%까지 회복
- '17년 항공유도, 함정, 기타 부문의 영업손실로 방산업체 평균 영업이익률은 크게 감소
 - * '17년 분야별 영업이익률: 항공유도(Δ 7.1%), 탄약(6.7%), 화력(6.0%), 함정(Δ 1.9%), 기동(3.5%), 통신전자(4.5%), 화생방(5.3%), 기타(Δ 0.2%)
- '20년 방산업체별 영업이익률은 함정분야를 제외하면 제조업평균(4.6%)과 비슷하거나 큰 것으로 조사
 - * '20년 분야별 영업이익률: 항공유도(4.7%), 탄약(5.8%), 화력(6.8%), 함정(Δ 6.8%), 기동(4.2%), 통신전자(4.2%), 화생방(5.4%), 기타(7.2%)
- '20년 함정분야는 신규 수주 실적 부족 및 제한된 국내시장에서의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방산업체 중 유일하게 영업손실을 기록
 - 함정 방산업체는 제조업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부가가치율³⁾ 및 설비투자효율⁴⁾을 보여 생산성 개선이 필요함
 - 함정 방산업체의 높은 가동률(85.9%)은 일부 업체의 생산라인 감소에 기인함
 - 함정 다음으로 영업이익률이 낮은 분야는 기동으로 4.2%의 영업이익률을 나타냄
- 방산 매출은 항공유도(31.9%), 탄약(16.5%), 화력(13.7%), 함정(13.3%) 순으로 4개 분야가 전체의 75.4%를 차지
 - * '17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 항공유도(19.8%), 탄약(2.7%), 화력(20.7%), 함정(24.6%), 기동(42.3%), 통신전자(22.1%), 화생방(12.4%), 기타(93.7%)
 - 기동 방산업체는 '17년 대비 매출이 42.3% 증가하였으나 탄약 방산업체 매출은 2.7% 증가에 그침
- 방산업체 기업 수는 항공유도·통신전자 업체가 16개로 가장 많으며 화생방 업체가 3개로 가장 적음
 - 통신전자 방산업체 수는 16개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방산업체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10.9%에 불과
 - 기동 방산업체 수도 14개로 화력(9개), 함정(8개)보다 많으나 매출 비중은 11.9% 수준으로 화력과 함정 방산업체 보다 낮음
- '20년 방위산업 매출은 국내 88.2%, 해외 11.8%로 구성
 - 방위산업은 내수 중심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어 수출을 통한 시장 확대가 필요

2020년 방산업체의 고용 인원은 3만 3,144명으로 제조업의 1.1%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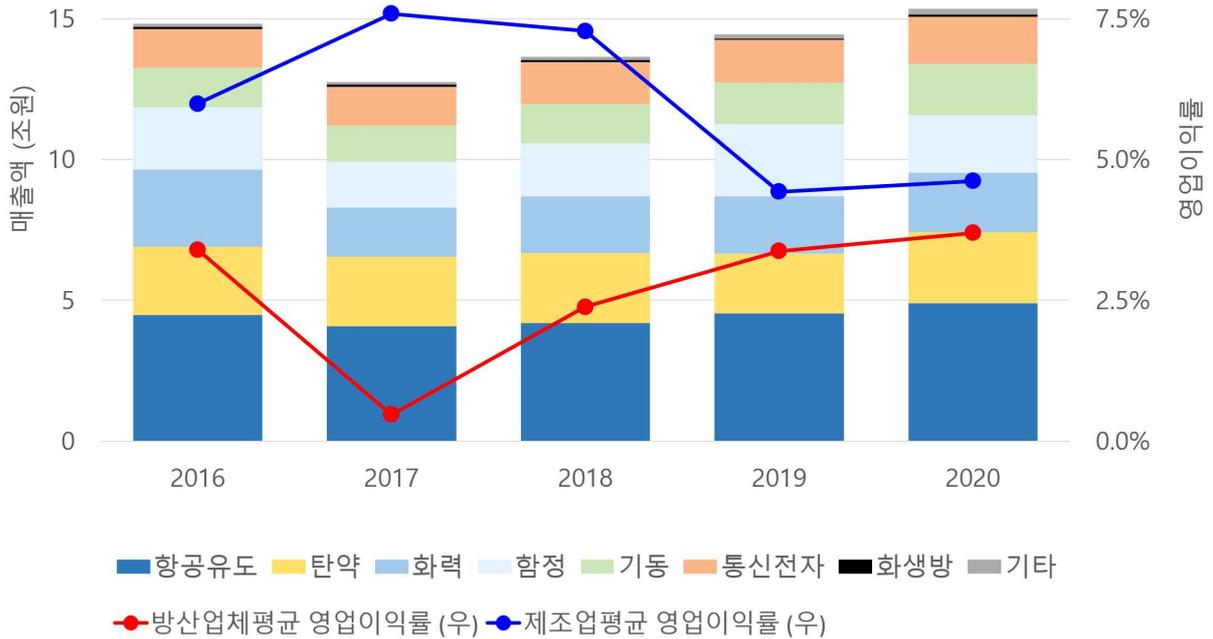
- 방산업체 인력은 항공유도(30.6%), 탄약(19.9%), 함정(13.9%)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
- 방산업체 인력 수는 '17년 대비 2.4% 증가
 - * '17년 대비 인력 증가율: 항공유도(7.0%), 탄약(Δ 8.9%), 화력(8.4%), 함정(1.5%), 기동(8.7%), 통신전자(1.1%), 화생방(Δ 21.6%), 기타(27.7%)

3) 부가가치율: 부가가치/매출액*100

4) 설비투자효율: 부가가치/(유형자산-건설중인 자산)*100



방산업체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자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은행, 통계청

2020년 방산업체 현황

구분	항공유도	탄약	화력	함정	기동	통신전자	화생방	기타	제조업 평균
기업 수	16	10	9	8	14	16	3	9	-
인력 수	10,131	6,586	3,601	4,617	2,978	4,113	251	867	-
영업이익률	4.7%	5.8%	6.8%	-6.8%	4.2%	5.4%	5.4%	7.2%	4.6%
가동률	69.5%	65.3%	80.5%	85.9%	67.6%	73.6%	67.8%	79.2%	71.1%
부가가치율	29.9%	35.3%	25.1%	12.4%	21.6%	24.5%	30.1%	28.2%	25.6%
설비투자효율	58.9%	56.4%	56.1%	19.2%	23.9%	133.1%	64.7%	70.2%	52.1%

자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은행, 통계청

2. 방산 수출 지원 정책 및 수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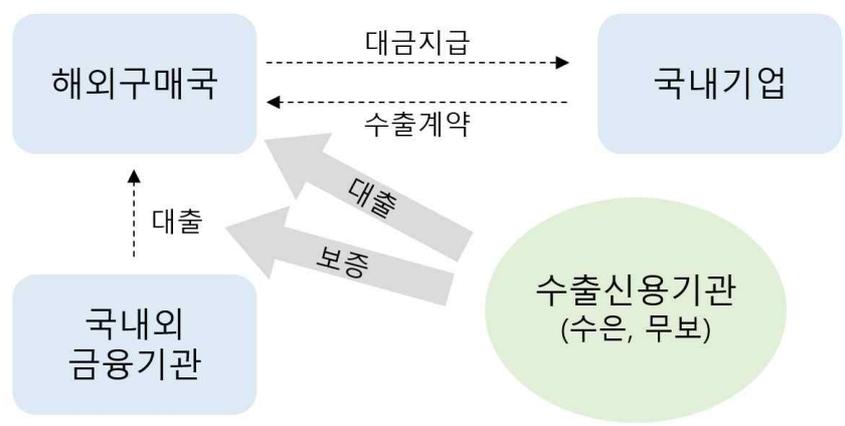
2021년 방위산업발전법 시행으로 방산수출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부품 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방산기업 성장동력 제공

- 기업이 수출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체계를 우리 군에서 일정 기간 시범 운용한 후 운용실적을 제공함으로써 수출 시 무기체계에 대한 성능 신뢰도 제고
- 무기체계 핵심 부품 중 수입부품을 국내 제품으로 개발하는 수출연계형 부품 국산화 사업을 신설하여 선정 업체에 과제당 최대 100억 원 한도 내 개발비 일부를 최장 5년간 지원

정부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수출 기회 모색, 네트워크 구축, 금융지원 등 방산 수출 지원 정책 시행 중

- 수출품 정부인증제도(DQ마크),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사업, 방산 수출 전문인력 양성, 수출 유망품목 발굴, 후속군수지원 등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시행 중
- 방산 수출사절단을 파견하고 방산수출상담회를 운영하는 등 수출 기회 모색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제공, 미국 방산 진출 선도기업 육성사업 등 수출역량 강화 노력 중
- 거래 대형화 및 방산시장 경쟁 심화에 따라 국내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구매국 앞 금융서비스 제공
- 수출입은행은 대출(수출성장자금, 수출이행자금, 수출기반자금)과 보증(수출금융보증 등 채무보증, 이행성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무역보험공사는 단·중장기 수출보험, 수출보증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등의 금융지원 제공
-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은 해외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하고 방산 수출 맞춤형 금융 자문 및 금융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
- 방산수출 지원 전담 창구인 방산수출진흥센터는 다른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방산업체의 수출 관련 행정 절차 등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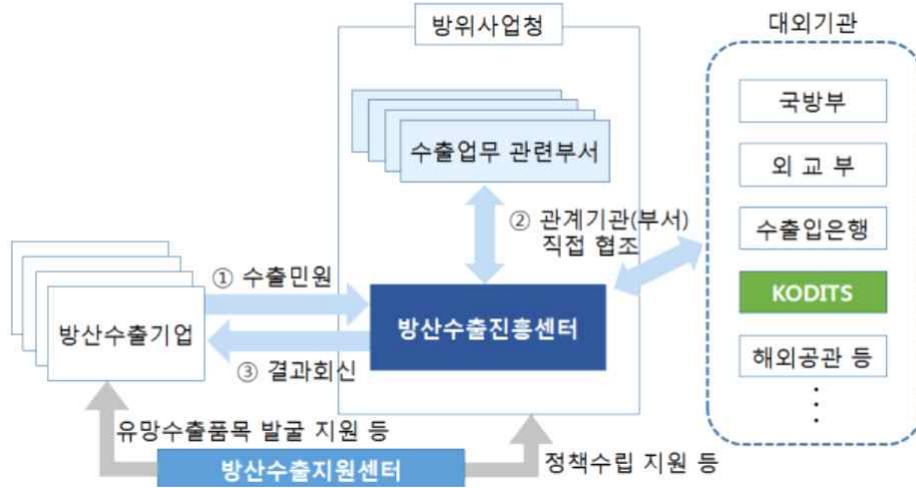
방산수출 금융지원 구조



자료: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방산수출 지원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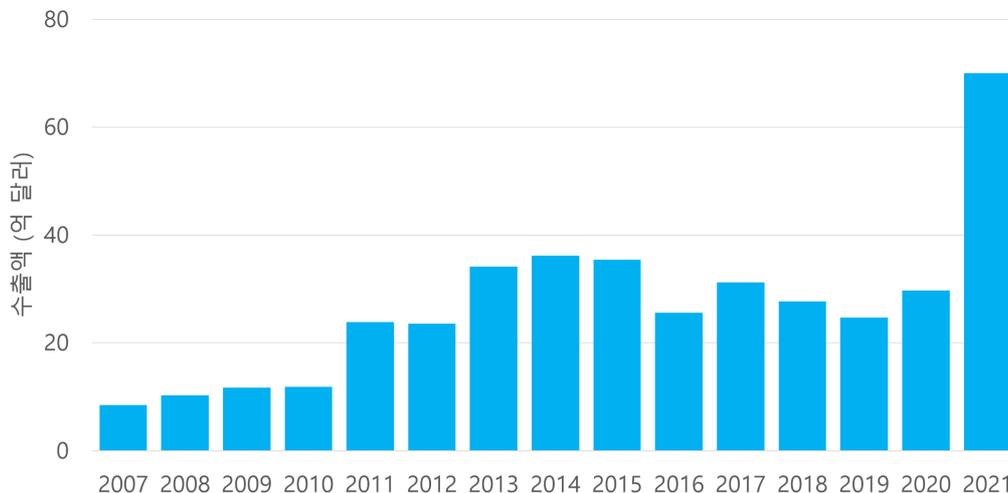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방위사업청

2021년 한국의 방산수출은 K9자주포, 호위함, T-50 등 무기체계 수출로 역대 최대 수출액인 70억 달러 달성

- 과거 탄약과 부품 중심의 수출이 완성 무기체계 수출로 전환하면서 수출액 크게 증가
* 완성 무기체계 수출 비중 : '12-'16년(35%), '17-'20년(51%), '21년(71%)
- 방산 수입액은 매년 약 50억 달러 규모로 '21년 처음으로 방산 수출액이 수입액을 넘어섬
- 국내 방산 수출은 '22년 UAE와 4조원 규모의 천궁-II 수출계약을 맺는 등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전망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세가 전망됨
- '22년에는 방산 수출액 10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

연도별 방산 수출액



자료: 방위사업청, 중앙일보



한국 방산 주요 수출 사례로는 인도네시아, 호주, UAE 등과 수출계약을 맺은 잠수함, K-9 자주포, UAE 천궁-II 등이 있음

- (이집트) '22년 2월 한화디펜스와 이집트 국방부는 K-9 자주포, K-10 탄약운반장갑차 및 K-11 사격지휘장갑차 수출계약 체결
 - 계약금액은 2조 원 이상으로 K-9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이며 아프리카 국가에 자주포를 수출한 최초 사례
- (UAE) '22년 1월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는 UAE와 천궁-II 수출계약 체결
 - UAE는 한국 외에 천궁-II를 운용하는 첫 국가이며 계약규모는 총 4조3000억 원으로 국산 단일 무기 수출 최고액 기록
- (이라크) '21년 11월 KAI와 이라크 국방부는 3년간 4,260억 원 규모의 경공격기 T-50IQ 후속운영지원 계약 체결
 - '13년 수출하여 이라크 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T-50IQ 24대의 정비와 군수지원, 군수품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신규 조종사 및 정비사 양성 교육훈련도 지원
- (인도네시아) '19년 4월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약 1조 1,600억 원 규모의 1400t급 잠수함 3척 수출계약 체결
 - 2011년 1,400t급 잠수함 3척을 수주하여 세계 5번째 잠수함 수출국이 된 이후, 2차 사업 수주에도 성공
- (호주) '21년 12월 한화디펜스는 호주획득관리단(CASG)과 K-9 자주포 30문 등 수출계약을 체결하며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호주에 주요 무기체계 수출
- (미국) '20년 8월 현대위아와 BAE시스템은 약 1,200억 원 규모의 함포 부품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절충교역 사전 가치축적 제도5)가 실제 방산 계약으로 실현된 최초 사례임

주요 방산수출 사례

수출대상국	수출품목	수출규모	기업명	계약 연월
필리핀	초계함 2척	5829억 원	현대중공업	2021.12
이집트	K-9 자주포, K-10 탄약운반장갑차, K-11 사격지휘장갑차	2조 원	한화디펜스	2022.02
UAE	천궁-II	4조 3000억 원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	2022.01
호주	K-9 자주포 30문, K-10 탄약운반장갑차	9000억 원	한화디펜스	2021.12
이라크	T-50IQ 후속운영지원	4260억 원	KAI	2021.11
	T-50IQ 24대	2조 2121억 원	KAI	2013.12
	T-50i	2745억 원	KAI	2021.07
인도네시아	1400t급 잠수함 3척	1조 1600억 원	대우조선해양	2019.04
	KT-1B 기본훈련기 등	1000억 원	KAI	2018.11
미국	함포 구성품	1200억 원	현대위아	2020.08
	A-10기 날개 구조물	3330억 원	KAI	2019.11
인도	K-9 자주포 100문	7200억 원	한화디펜스	2017.04

자료: 전자공시, 각사 보도자료

5) 사전 가치축적(Banking) 제도: 국외 기업이 국내 기업과 평소에 협력한 실적(부품 제작·수출, 공동개발 등)을 축적하고 향후 사업 수주에 절충교역 가치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제도



IV. 시사점

1. 방산 수출의 필요성

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갈등 등으로 전 세계 군사비 및 무기거래량은 증가할 전망

-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와 유럽국가간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유럽지역 군비증강이 전망됨
- 독일은 군 강화를 위한 1,000억 유로(약 135조 원) 규모의 특별기금을 마련하였으며 항공기 조달, 육지 부문, 해양 부문, 지휘체계 및 디지털화에 각각 334억 유로, 166억 유로, 88억 유로, 208억 유로를 사용할 계획
- 스웨덴, 덴마크 등도 군비 증가를 발표하여 유럽 지역의 군사비는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
- 중국의 지속적인 군비증강 및 북한의 핵 위협 등은 한국, 일본, 인도, 미국, 호주 등 국가의 군사력 강화 요인으로 작용
- 미 국방부는 중국의 부상 및 러시아와 북한 등 위협에 대비하여 '23년 국방 예산안을 '22년 대비 8.1% 증액한 7,730억 달러 규모로 책정하여 의회에 제출

방산 수출 확대는 방산업체의 가동률 및 생산성 향상과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안보 강화 및 기술발전에 기여할 전망

- 수출을 통해 국내 방산업체의 가동률을 높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생산성이 개선되면 우리 군은 방산물자를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조달 가능
-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고품질 무기체계를 경제적으로 획득하고 운용 가능
- 시장 확대를 통한 방산업체의 성장은 방산기술 연구개발로 이어질 전망으로 우리 군의 군사력 향상이 기대됨
- 높은 수준의 기술력 확보는 국가 안보 강화에 기여할 전망
- 국내 방산업체의 성장은 관련 중소기업 육성 및 고용 증가 등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
- 방산업체는 수출 비중을 늘림으로써 향후 국내 방산 재정이 축소되더라도 매출을 일정부분 유지할 수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
- 높은 수준의 방산 기술은 민간으로 이전되어 국내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 인터넷, GPS 등과 같이 방산에서 파생된 기술을 민간에서 활용하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따르면 '10-'15년 국방기술 이전에 따른 직간접적 경제효과는 9조 3,519억 원이며 고용은 4만 6천 명 발생한 것으로 조사



주요 선진국은 자국 안보 강화 및 국익 증진을 목표로 전담 조직 운영, 정부 간 거래, 수출금융지원 등을 통해 방산 수출 지원

- (미국) 미국은 우방국의 안보 지원 활동을 통해 자국을 보호하는 전략으로 방산수출을 지원
 - 미정부가 구매국 대신 무기를 구입하여 전달하고 추후에 비용을 받는 정부 간 거래 방식인 대외군사판매(FMS:Foreign Military Sale) 제도 등으로 방산 수출 지원 및 미국 무기체계 강화
 - 한국은 '16-'20년 국외구매 무기도입 13조 5,681억 원 중 53.2%를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구매
- (러시아) 방산수출을 통해 경제성장 및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 수출 상대국과의 상황 및 관계에 따라 유연한 수출전략 구사
 -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도와 핵에너지, 우주, 방산 등 폭 넓은 분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패키지 딜 채택
- (프랑스) 수출신용기관(ECA)인 Bpifrance Assurance Export를 통해 방산 수출 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며 프랑스군의 노하우 전수를 목표로 하는 컨설팅그룹 DCI group을 통해 무기 구매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협력관계를 구축
- (영국) 방산 수출을 지원하는 조직 UKDSE(UK Defense & Security Exports)는 방산수출 진흥을 위해 외국 정부와 관계를 유지하고 국방부 등과 협력을 통해 전문적인 컨설팅 제공

2. 방산 수출전략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여러 국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하여 수출상대국을 다변화하고 국가별 맞춤형 방산 수출전략 수립이 필요함

- 방산 수출은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며 국가별 맞춤 전략을 통해 방산수출 확대
 - 많은 국가에서 비용절감, 안보강화 등을 목표로 방산 물품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절충교역, 금융지원, 리스 등 수출상대국별 맞춤전략을 통해 수출 확대
 - 현지 네트워크 활성화로 면밀한 국가별 상황·정책 등 조사를 통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
- 국내 방산업체의 품질 보증 및 마케팅 지원 등으로 국내 방산 품목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부 노력 필요
 - 정부 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 기업의 수출 접근성 확대
- 방산 수출은 수출 상대국과 외교적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민간분야의 경제 협력관계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방산수출 지원체계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구축 또는 구조 재편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여 체계적으로 수입국별·무기체계별 맞춤 지원 정책 제공



무기체계 공동개발 등 첨단기술 개발 및 수출을 목표로 방산 구조 고도화 추진 필요

- 국제공동개발 사업으로 개발예산을 절감하고 수출 가능성 확대
 - 방위산업은 무기체계 기획부터 개발·생산·운영까지 약 20~30년의 긴 시간이 필요하므로 초기단계부터 국제공동개발 사업 검토가 필요함
 - 이를 통해 첨단기술 개발 비용 절감, 안보 강화, 글로벌 시장 선점 등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우주항공, 감시·정찰 등 첨단기술 개발 지원 및 인력 육성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구조 고도화 달성
 - 항공기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방산 선진국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기술개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고부가가치 산업
 - 방산 구조 고도화를 통해 국내 방산업체의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함정, 화포 분야로 제한적인 한국의 방산 수출 품목을 다각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국내 항공, 광학 분야 국산화율은 각각 52.8%, 66.3%로 다른 분야대비 낮은 수준으로 꾸준한 연구개발이 필요함
 - * 방산물자 국산화율(완제품 기준): 화생방(90.0%), 통신전자(88.3%), 유도(85.2%), 화력(77.8%), 함정(76.6%), 탄약(75.5%), 기동(75.2%), 기타(72.1%), 광학(66.3%), 항공(52.8%)
- 인수합병 등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노력 필요
 - 인수합병을 통해 크게 성장한 사례로 대형 방산기업인 록히드마틴, 에어버스 등이 있음
 - 인수합병, 합작 투자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 및 생산성 향상을 이뤄 경쟁력 강화

산업연구원은 한국과의 관계, GDP, 국내 방산제품과의 연계성 등을 토대로 10대 방산수출 유망국가를 선정

- (미국) 미국산우선구매법으로 외국기업의 진출이 쉽지 않으나 우방국과의 전략적인 협력관계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해 방산물자를 수입하고 있으며 우방국과 무기체계 개발·생산 등 방산협력을 하는 추세
 - 미국과의 절충교역 및 탄약수요 등으로 인해 방산수출 유망국가로 선정
- (인도) 방산 수입선 다변화 노력으로 러시아 비중을 '12-'16년 69%에서 '17-'21년 46%까지 낮췄으며 향후 방산 부문의 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방산 수입 시 '인도 내 제작'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
 - 해외 방산업체는 인도의 방산 국내 조달 방침으로 인해 합작투자기업 설립을 통한 인도 진출이 늘어나고 있음
- (사우디) 한국 방산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은 사우디의 석유중심의 산업구조 다각화 등을 위한 장기 전략인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협력 국가
 - 높은 방산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현지생산, 기술이전 등으로 국내조달 50%를 목표로 하고 있어 절충교역 활용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



- (필리핀) 필리핀은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미국 동맹국인 한국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어 지속적인 방산 수요가 발생할 전망
- 중국과의 남중국해 분쟁 및 군 현대화 프로그램으로 항공기, 함정, 센서 수입 비중이 높았으며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통신체계, 시뮬레이션, 무인체계 등이 있음
- (인도네시아) KF-21(보라매) 전투기 공동개발을 추진 중이며 한국방산에 대해 우호적인 방산 협력국가
- 국방 조달 과정에서 부패요인 제거를 위해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조달체계를 벤치마킹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정부 간 거래를 우선시함

방산수출 유망 국가

순위	국가명	2020-24 GDP	한국과의 경제적 관계	분쟁 가능성	2015~19 국내방산수출수주 (억달러)	2020~24 무기획득예산 (억달러)	국방방산 협력 관계	국내방산제품과의 연계성	예상 수출규모 (억달러)
1	미국	★	★	★	15	7,291	☆	T-50A 훈련기, 장갑차, 유도무기 등	100+
2	인도	★	★	★	3	582	★	대공방어체계, 소해함, 군수지원함	15+
3	사우디	☆	☆	★	5	300	☆	유도무기, 방어체계	10+
4	필리핀	☆	☆	★	5	36	★	잠수함, 초계함, FA-50, 곡사포, 군용차량 등	10+
5	인도네시아	★	★	☆	12	31	★	잠수함, T-50 훈련기, 수리온	10+
6	호주	☆	★	△	0.5	313	☆	장갑차, K-9 자주포, 천무	50+
7	UAE	●	●	●	00	169	☆	방어체계, k-9 자주포	10+
8	말레이시아	☆	☆	●	0.1	37	★	FA-50, 전투함, 임무함 등	10+
9	폴란드	●	☆	●	-	130	☆	전차, 무인기 등	5+
10	콜롬비아	○	●	☆	-	17	☆	FA-50, 해성, 신궁, 천궁	15+

주: ★ : A등급, ☆ : B등급, ● : C등급, ○ : D등급, △ : E등급

자료: 산업연구원



<참고 문헌>

1. 방위사업청(2020), *방산육성·국방조달 길라잡이*
2. 방위사업청(2021), *2021년도 방위사업 통계연보*
3. 방위사업청(2019), *방산원가구조 개선으로 방위산업 재도약한다*
4. 방위사업청(2021), *세계 시장을 향한 'K-방산' 발전 기반 확립*
5. 국방부(2021), *2022년 국방예산, 전년대비 3.4% 증가한 54조 6,112억원으로 확정*
6.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2021), *방산수출 종합 가이드북*
7. 산업연구원(2017), *국제 방산시장 환경 변화 및 주요국 방산수출정책 연구를 통한 방산수출 진흥방안*
8. 산업연구원(2020), *2020 KIET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9. 산업연구원(2020), *뉴노멀 시대의 재정환경변화에 대응한 방위산업 구조 개선방안*
10. 산업연구원(2019), *주요 선진국의 방산수출 파이낸싱 정책과 발전과제*
11. 창원산업진흥원(2021), *2021 국내외 방위산업 동향 및 지역 발전과제 연구*
12. 국회입법조사처(2020), *방위산업 수출 지원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13. 국방기술품질원(2020), *미국 방산시장 동향분석 보고서*
14. 국방기술품질원(2020), *인도 방산시장 동향분석 보고서*
15. 국방기술품질원(2020), *사우디아라비아 방산시장 진출전략 보고서*
16. 국방기술품질원(2020), *필리핀 방산시장 진출전략 보고서*
17. 국방기술진흥연구소(2021), *국방조달시장진출 가이드북 인도네시아*
18. 중앙일보(2022), *"한번 터지면 10조"...미국 수출도 넘본다, 체급 달라진 'K방산'<1>*
19. 국방일보(2022), *범정부적 지원으로 방산수출 100억 달러 시대 열겠다*
20. SIPRI(2022), *Trends in international arm transfers, 2021*
21. SIPRI(2022), *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21*
22. OECD, *Official Export Credit Agencies*